

# 2010년대 이후 여성 소설에 나타난 장애 재현의 전복성

## - ‘돌봄’ 윤리를 통한 장애와 비장애의 경계 해체 서사를 중심으로

박찬호(대중서사학회)

### 1. 서론 : 연구 방법과 연구 목적

#### 1. 연구 배경

“21세기 이후 윤리학의 초점이 주체에서 타자로 이동. 이때 부각되는 것이 ‘돌봄’ 윤리” + 장애는 치유를 목표로 돌봄과 관리의 대상이 될 때 비장애 존재와 변별  
⇒장애-비장애의 경계 해체 위해 돌봄 윤리에 주목할 필요.

2. 연구 대상 : 2010년대 이후, 전형적 장애 형상에서 벗어난 여성 소설 등장. 김미선 <버스 드라이버>(2013), 공선옥 <그 노래는 어디서 왔을까>(2013), 김초엽 <므레모사>(2021)

#### 3. 연구 방법

- 1) 캐롤 길리건의 돌봄 윤리 : ‘자기 돌봄’에 대한 인식을 통해 인간 상호 관계의 중요성 부각. ‘여성적 윤리’로서의 돌봄에 대한 비판과 ‘여성주의적 윤리’로서의 돌봄 강조.
- 2) 해러웨이의 ‘함께-되기’: 서로 얽힌 존재들이 연결의 상호작용 과정에서 함께 되어가는 실천(길리건 이론과 연결).
- 3) ‘돌봄’ 윤리를 기반한 취약한 존재의 대항 서사 분석하면서 장애와 비장애의 경계 해체 가능성 탐색.

자기 서사	자기 삶을 이야기, 수필·편지·자전적 소설 등 타자화된 경험의 재현 가능성, 자기 돌봄의 윤리
공명의 서사	서로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고, 응답하고, 다시 자신의 이야기를 전하는 서사, 이야기와 이야기가 만나 공명하는 서사
함께되기 의 서사	모두가 퇴비인 세상에서 서로 관계를 맺으며 혼 합, 장애인과 자연이 상호 연결되는 서사

#### 4. 연구 목적

그동안 여성 SF를 중심으로 장애가 연구된 것에서 더 나아가, 여성 장애 소설의 저변 확장. 장애인(의 신체)을 무성적 대상, 국가의 고통을 담은 몸, 비극의 장소로 규정하는 것을 거부하기 위한 인식 틀로서 ‘돌봄’ 윤리에 주목. 세 작품에 공통적으로 드러나는 자기 돌봄의 양상과 더불어 자기 돌봄의 저항성(김미선), 자기 돌봄이 상호 의존 관계로 나아가는 과정(공선옥), 서로의 존재가 혼합된 함께-되기로 형상화되는 양상(김초엽)까지 분석함으로써 **비장애중심주의를 넘어선 장애 재현의 전복적 서사**를 살펴볼 것.

### 2. 자기서사, 여성적 윤리로서의 돌봄 비판과 무성적 대상화의 거부 : 김미선, <버스 드라이버>

1. 기존 논의는 비장애인 중심의 성 담론을 해체한 소설로 평가. 이 연구는 더 나아가 가부장 질서에 종속된 여성적 돌봄이 소아마비로 신체적 장애를 지니게 된 여성을 무성적으로 대상화하는 양상을 비판하고, 장애 여성이 자기서사를 통해 자기 긍정에 이르는 과정 주목.

#### 2. ‘자기서사’로서의 <버스 드라이버>

자기서사는 “남이 요구하는 것이 아닌 자신이 느끼는 것을 적극적으로 표현한다는 측면에서 자기 돌봄의 윤리와 만남”

에세이, <이 여자가 사는 세상>	소설, <버스 드라이버>
어머니의 딸 양육 : 넉넉한 품의 옷을 입힘, 가정을 못 이룰 것이라는 걱정	장애 여성이 ‘혼자 사는 법’을 가르치는 양육 방식 비판, ‘무성적 대상화’의 거부
시아머니의 아들 양육 : 직업적으로 유능한 남성으로 성장, ‘전지전능한’ 모성	희생적 치유 노동으로 장애 남성을 생산적 노동자로 변화시키는 ‘대리 치유’ 비판

3. “나에게 필요한 건 꼭 한 번의 경험”이라는 절규로써 기존의 가치관에 도발적으로 의문을 제기. 가부장적 여성의 돌봄 논리를 거부하면서 장애 여성에게 부여한 한계 해체.



김미선 공선옥



김초엽



인용문1



인용문2 참고문헌



### 3. 공명의 서사, 자기 돌봄의 인식과 장애 존재의 주체화 : 공선옥, <그 노래는 어디서 왔을까>

1. 기존 연구는 5월 광주에서의 경험으로 정신적 장애를 갖게 된 ‘정애’의 ‘말’에 응답하는 공동체의 가능성(정애-묘자)을 분석. 여기서는 장애 여성의 장소가 마을 여성들이 자기를 돌보는 공간으로 전환되면서 “서로가 응답”(길리건)하는 의존 관계로 나아가는 과정에 중점을 두며, 돌봄의 주체가 ‘억척스러운 어머니’가 아니라, ‘연약한’ 존재임을 주목.

#### 2. 공명의 서사, <그 노래는 어디서 왔을까>

1) 장애 여성 정애와 마을 여성들의 이야기가 조우.

장애 여성의 집은 서로의 슬픔을 다독이는 경배의 공간.

박선택과 정애	박선택은 박선택에게 강간 당한 정애와 아버지에 게 ‘몸쓸 짓’을 당한 자신을 동일시.
마을 여성들과 정애	정애의 말과 그림은 마을 여성들에게 경이로운 의미를 담은 것이자 불행을 함께 걱정하는 매개.

⇒장애 여성은 마을 여성들과 상호 의존 관계에 있는 공동체의 한 구성원이자 숭배해야 할 타자로 격상.

2) 연약한 자들과 삶의 지속 가능성, ‘순환’하는 돌봄

① 묘자가 장애 여성 단이와 그녀의 갓난 아기를 돌보고, 성장한 단이의 아이가 장애 여성 정애를 돌보고, 정애의 목소리가 감옥에 갇힌 묘자를 돌봄 ② 어머니는 돌봄의 주체인 동시에 돌봄의 대상이 되며, 또한 어머니는 혈연과 동식물의 구분을 떠나 타자를 돌보는 것으로 형상화(인용문1).

3. 장애 여성 정애, 침묵 당한 타인을 발화시키는 주체로 : “그 노래는 어디서 왔을까”는 연약한 이들의 이야기가 만나 공명하는 과정을 통해 장애-비장애의 경계 해체.

### 4. ‘함께-되기’의 서사, 치유 폭력에서 불구의 미래로 : 김초엽, <므레모사>

1. 여성 SF 소설에 나타난 장애를 분석한 논의는 공통적으로 비인간과 인간의 경계를 벗어나는 사유 탐색. 본 연구는 기존 논의를 수용하되, 새롭게 <므레모사>가 ‘좀비’와 장애 존재를 연결하고, 장르 문학에서 좀비를 학살 대상으로 간주하는 논리를 전유한 점 분석. 치유를 강요하는 폭력성을 비판하면서 장애인 개인의 선택을 존중하는 돌봄을 부각한 점 주목.

#### 2. 재난 지역 ‘므레모사’의 공간성 전환과 ‘함께-되기’의 서사

다크 투어리즘	⇒	테라폴리스
장애와 비장애의 경계 명확, 재난 지역을 체험하며 교훈을 얻는 행위=장애를 구경하는 것		모두가 퇴비(“오염물, 죽은 것들과 산 것들이 서로 관계를 맺으며 혼합된 것들”)
의족을 차고 발레리나로 성공한 유안은 ‘장애 영웅’, 유안은 치료를 거부한 이들에게 교훈을 줄 수 있는 존재		움직이는 것이 움직이지 않는 것을 돌보고 경배, 사고로 ‘나무’처럼 변형된 귀환자들의 공동체

(의료인의 시선에서 묘사된 므레모사의 풍경, 인용문2)

#### 3. 장애 여성 ‘유안’의 선택과 레러의 <선회하는 이야기>(그림)



유안은 ‘테라폴리스’로서의 므레모사에서 장애를 선택한 공동체에 속하면서 자신도 기꺼이 나무가 되고자 함. 그림에서 뇌병변 장애인 클레어가 자연에 접속하는 이유는 치유를 위해서가 아님. 인간이 지구, 뼈 등과 함께 잘 지낼 수 있는지 고민하는 행위.